

2008년 11월 27일 목 말씀

교회에 평생 한 번 왔다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명씩은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1년에 50명입니다. 2년이면 100명 3년이면 150명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교역자들이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을 못 잡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어서 그때 딱 딱 느낌 있게 데리고 와야 옵니다. 이렇게 오는 생명들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전도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회가 왔는데 못 잡은 사람들은 못 옵니다. 기회를 안 잡은 사람들은 귀한 것을 모르니까 안 옵니다. 사람들이 신앙적인 세계에 대해서 귀한 것을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도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잘 해줘서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 '아직 안 다니고 싶은데' 했어도 형님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잘 해줘서 교회 온 거지 잘 안 해줬으면 안 나갔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 할 때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밑의 지방부터 쪽 기도하면서 올라옵니다. 충무. 여수, 목포, 완도도 다 기도합니다.

예전에 마산에 교회가 한 개였는데 지금은 7개나 됩니다. 진짜 많이 만든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잘 됩니다. 나는 계속 기도만 해줍니다. 애기 볼 때도 엄마가 혼자 다 못 보지 않습니까? 엄마가 일해야 되면 동생들이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설교 하고 다닐 때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밤, 낮으로 잠을 못자지 않습니까? 낮에는 유럽하고 밤에는 아시아 쪽 하고 시차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속 하니까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기에 그 나라 시간에 맞춰서 해줘야 했습니다. 그 때 안하면 사람들이 그냥 가버립니다. 직장도 가고 다른 모임도 가고 그러니까 그 나라 시간에 맞춰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낮 빛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는 과로해서 쓰러지고 그랬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사람들을 보는데 눈이 감기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사람들이 처음 봤는데 성의 없다고 하면서 서운해 했습니다. 이제는 건강 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아프면 죽습니다. 과로하면 죽습니다. 그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과로란 무엇이면 기체가 막 돌아가다가 열나면 멈추듯이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면 끝나는 것입니다.

충무는 내가 옛날에 한 번 갔었습니다. 가서 교회를 만들고 왔었습니다. 해외 50개국에 교회 있다고 하면 정말 50개국이 있나 하는데 정말 50개국이 있습니다. 내가 갔다 온 나라는 28개국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내가 직접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다른 나라회원들에게 하라했더니 한 나라씩 해서 50개국이 되었습니다. 내가 갔다 온 곳은 다 교회가 생겼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제야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서 다 감격했습니다. 뉴질랜드도 내가 있을 때 계속 전도를 몇 번이나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어 다 나갔습니다. 다시 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어 기어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도할 때 천 명한다, 만 명 한다. 그래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1000리 운동하려고 하면 1500리 운동 하겠다 마음먹고 해야 1000리를 넘어갑니다. 1000리 놓고 하면 700리 800리 가다가 지쳐서 못합니다. 모든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 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열심히 하십시오.